

97학년도 각학생회 선거 '성큼'

서울 오는 16일까지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 기간
총학, 후보간 각축...19일부터 21일까지 투표 수원

우리학교 '97학년도 각급 학생회 선거가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단과대학생회 선거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선거에 돌입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일정은 오는 16일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일주일간 선거운동 및 유세를 치른 후 오는 28일, 29일 양일간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단과대학생회 선거일정은 △체육대-등록기간 15일까지, 선거일 25, 26일 △치과대-등록기간 12일까지 선거일 18일 △사범대-등록기간 13일까지, 선거일 14, 15일이며 그밖의 7개 단과대학생회 선거는 현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일정은 현재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오는 18일까지 선거운동 및 유세를 마치고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선거를 치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위)에 등록된 총학생회 후보자는 기호 1번 정: 이길구(전자 3, 부: 김상준(경영 3)군과 기호 2번 정: 이병연(건축 3), 부: 김세훈(회계 4)군 등이고 총여학생회는 단독출마로 정: 김지은(임학 3), 부: 김희정(사회 4)양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또한 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6개 단과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으며 지금까지 선거운동 및 유세를 마치고 오는 12, 13일 양일간 선거를 치른다.

단과대학별 후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외국어대-단독후보 정: 전주연(불문 4)
△사회과대학대-단독후보 정: 남주현(경영학부 2) 부: 유상용(행정 3)
△자연과학대-기호 1번 정: 한수민(우주 2) 부: 윤용관(화학 2), 기호 2번 정: 김종환(물리 4) 부: 박재용(화학 2)
△공과대-기호 1번 정: 원

정욱(산공 3), 기호 2번 정: 김보섭(토목 4) 부: 최호진(전자 2)
△산업대-기호 1번 정: 강준영(임학 2) 부: 박종은(도에 1), 기호 2번 정: 박근준(식품 3) 부: 김동만(농학 3)
△체육과대학대-단독후보 정: 백승훈(체육 3)

경인지역 11개대

도서관이용 협약체결

'97학년도 1학기부터 실시되는 경인지역 11개대학 교육교류의 하나인 도서관이용에 관한 협약이 지난 6일 결정됐다. 도서관 이용은 소속대학의 도서관장이 발급한 도서관 출입 의회증을 소지한 학생이면 가능하고 대출은 대학원생 이상으로 허용한다. 도서관 이용기간은 재학기간중에 한하여 허용되며 휴학기간은 제외된다.

또한 경인지역 대학 도서관을 상호개방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자료열람실의 운영발전을 위한

열람과장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한편 학부학점교류는 현재 우리학교와 아주대, 경기대, 인하대 등이 합의한 협의안으로 오는 경인지역 교무처장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취재부)

96 경희 사자 제전

'96 경희 사자 제전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체육대 학생회의 주최로 4일간 개최된다. 이번 제전은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직원 체육대회 및 각종 경기의 예선전을, 13일에는 크로스 컨트리 및 배구, 축구 결승전을, 14일에는 발야구, 씨름, 농구 결승전 및 체육인의 밤을 갖게 되며 마지막 날인 15일 행해지는 북한산 등반대회를 끝으로 이번 행사를 마치게 된다.

핸드볼부 우승

우리학교 남자 핸드볼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4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대학

핸드볼대회'에서 조선대, 원광대, 그리고 북경선발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서울캠퍼스 축구부는 '제51회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지난 7일 열린 연세대와 결승에서 1점차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이번대회에서 김영선(체육·3)군은 우수선수에 뽑혔다.

학자추, 교양강좌평가

수원캠퍼스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에서는 오늘부터 하반기 교양강좌의 평가를 실시한다.

우수한 교양강좌의 선별, 교습자의 자질능력 평가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양강좌 선별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교양강좌의 평가는 수강학생들의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학자추 노상임(우주 4) 위원장은 "학부제를 실시하면 교양강좌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 알찬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하며 "이번 설문에 학생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뉴스서비스

천리안: GO KHU 32

하이텔: GO KHU 10

인터넷:

http://news.kyunghee.ac.kr

경희 슬로전 공모결과 발표

장용표(법학2)군, 박대연(법대행정3)군 우수상

우리신문이 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한 경희가족의 학교 사랑과 대학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슬로전 공모 결과를 발표합니다.

아쉽게도 대상은 없으며 장용표(법학2)군이 '오늘 만나는 미래의 대학'으로, 박대연(행정3)군이 '가능성의 발견 그것은 당신을 발견한 경희의 기쁨입니다'라는 슬로전으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각각은 신혜숙(간호학과)교수의 '21세기를 여는

첫걸음, 경희와 함께'와 이향복(유정공 3)군의 '살아숨쉬는 진리 솟아오르는 패기 아름다운 경희에서'와 강성민(법과과)군의 '열린교육 열린 미래 세계속의 경희대학교'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만원과 상패, 각각은 1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지며 시상식 날짜와 장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그 동안 참여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사과문 ◇

독자여러분 죄송합니다. 특권고 제재를 두고 빚어진 논란으로 부득이하게 2주간 휴간하여 독자여러분께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기자일동은 더욱 성실한 자세로 신문제작에 임할 것이며 이에 독자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96 총장선출제도 난항

경민협과 학생회 교수협의회 입장 반박

경희학원민주단체협의회(경민협)가 제안한 '96 총장선출제도에 관한 안이 교수협의회측의 입장과 엇갈려 난항을 빚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 서울캠퍼스 복지회관 교직원 식당에서 개최된 '제1차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이번 사안은 총장선출에 있어 직원, 학생의 직선제 참여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단일 학교측에서 이안을 받아들일 경우 '96년 총장선출은 예비선거와 본선거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또한 본선거의 선거권자로 전체교수, 직원대표 30명, 학부생대표 30명, 대학원생 대표 10명이 선정된다.

이에 교수협의회측은 "타학

방식의 총장 직선제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교수들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현행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민협측은 "총장 선출제는 결코 민주적인 방식의 선거일 수 없으며 진정한 민주적 선출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96 전국 아동미술 공모전

우리학교는 전국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96 전국 아동미술 공모전을 개최한다. 우리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와 부설 현대미술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환경주제(환경 되살리기,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등 2부로 나뉘어 실

고 밝혔다. 또 한 총학생회측은 "학원의 구성원은 교수가 전부일 수 없으므로 학원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행사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말해 경민협과 함께 교수협의회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번 공모의 접수는 오는 15일까지이며 사무국에서 받는다. 접수된 작품은 실사를 거쳐 오는 21일 수상작을 발표, 27일 오후 4시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제2회 경희사진 공모전

1인당 10점 이내...오는 25일까지 마감

저희 대학주보사에서는 우리학교의 자연과 학생들을 소재로 한 제2회 경희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우리학교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자료를 발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이 공모전에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출품자격: 재학생, 대학원생, 동문, 교직원등 모든 경희 구성원
2. 작품내용: 캠퍼스 경관 및 우리학교 학생들의 생활모습(우리학교와 관련된 소재이면 내용에 관계없음)
3. 규격: 11×14 사진을 첨부한 원본 필름(사진에 패널 부착 금지)
4. 출품수: 1인당 10점 이내의 미발표작
(타 공모전 입상작이나 모방작은 입상취소)
5. 출품요령: 출품료는 없으며 작품명, 촬영장소, 작가명, 주소, 학과/학년, 전화번호를 따로 적어 제출(학생이 아닌 경우는 해당사항을 명기할 것)
6. 작품접수: 1996년 9월 23일-11월 25일까지(우편접수는 11월 5일 도착분까지)
7. 접수처: 대학주보사 편집실(서울: 961-0094 수원: 280-2056)
8. 입상작 발표: 1996년 11월 11일자 대학주보 지면을 통해 발표함
9. 시상내용: 장원 1작 장학금(상금) 1백만원, 우수상 2작 장학금(상금) 50만원
가작 3작 장학금(상금) 10만원
10. 참고사항
1) 모든 입상작품은 대학주보사에 귀속됨.
2) 시상식, 전시회 및 낙선작 반환에 관한 사항은 입상작 발표시 알릴 예정임

대/학/주/보/사

교시탐

전시행정의 모범(?)

▼날로 더해가는 교통난과 주차난으로 현대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 차는 점점 늘어가고 차도는 한정된 상황에서 운전자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보행자의 권익과 불편에 대한 관심들은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차도중절 보다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완벽한 인도설치가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10월초 수원캠퍼스는 산업대 옆 차도 가장자리에 인도를 설치했다. 이곳이 체과대 와 산업대를 잇는 고개의 입구이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여 학교측에서 학생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자동차의 통행을 막을 수 있는 턱조차 없이, 빨간색 페인트와 노란색 페인트를 차도에 그대로 임해 만들어 인도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들은 여전히 이곳에 주차되어 있고, 심지어 이 위를 침범한 채 달리는 모습도 보인다. 게다가 부실하게 만들어진 인도로 인해 '주차금지' 뜻말은 세워져 있

고, 주차한 차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병식 관리과장은 "인도공사 마무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빠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봄 이전에는 마무리 될 것"이라 밝혔다.

▼인도가 사람이 다니는 길을 뜻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물론 색을 칠해 사람이 다니는 길을 구별하였지만, 이곳이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제 역할조차도 수행 못하는 무용지물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현재 수원캠퍼스는 '우정원'기숙사를 비롯하여 많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양강좌동 건설'이라는 커다란 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공사와 같은 시행착오를 다시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임시방편적인 방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진원 기자)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세계속의 경희대학교
여러분의 정성과 후원으로 완성됩니다

경희발전기금, 이렇게 쓰입니다

이제 다가올 21세기.....
더욱 새로운 각오로 반드시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 장학금 되돌려 주기 운동

영원히 변치 않는 교직, 모교발전의 튼튼한 토대입니다.

○ 대강당(평화의 전당)완공

○ 개교50주년 기념관 건립 기금 조성

경희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1999년 개교50주년기념 사업기금을 위한 범 경희인의 후원운동을 전개합니다.

경희의 긍지와 명예를 걸고 경희인의 손으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 기타 특별목적사업기금 조성

- 교육시설 확충(특수교육공간 건설 및 문화공간 확충)

- 학술연구/첨단과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우수교원 및 연구원 확충

- 종합 학술 정보체계 수립/도서관 장서구입

- 문화예술/창작/체육진흥기금

- 장학/각종 교시육성 후원기금

경희발전기금 참여안내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귀한 발전기금은 경희대학교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며 이 나라의 미래를 여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 대상: 경희가족(동문,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독지가, 기업, 기관, 단체 등
- 기부형태: 현금, 주식 및 유가증권, 기타자산(부동산, 기타), 도서자료, 실험실습 기자재 등
- 일시 및 분할 납부: 일시 또는 월납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단체별(예: 직장/지역동문회 등)
- 각 학과/대학(원) 별 특정목적기부금으로 지정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 납부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약정서에 기재하신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

무통장입금(예금주: 경희대학교)
국민은행 010-01-0618-642 한일은행 070-08446-B-101
서울은행 17301-2719-209 외환은행 131-B-10336-6
농협 031-01-396711 평화은행 044-01-001-286
우체국 012336-0025556

- 현금을 출원하시고자 할 때에는 희망하시는 금액을 일시에 출원하거나, 출원금액을 약정하여 원하시는 횟수대로 분할하여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할일 경우 1회분 불입시 도장을 가지고 해당은행에 가서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우편환 또는 전신환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직접 찾아 뵙겠습니다.
- 급여공제(교직원에 한함) 가능
-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자산 출원은 개교50주년사업화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 유산상속이나 기타 소유 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헌납하실 수 있으며 모든 법적 수속과 관련비용은 학교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경희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사업회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Tel: 961-0931/2 Fax: 961-0906